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9(금) ~ 2024.2.15(목)

제공일시 2023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9(금) ~ 2024.2.15(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탄소시장 출범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 계획

- 유럽연합(EU)은 CO2 배출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EU 밖 국가들이 탄소 시장을 출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EU의 기후 정책 책임자가 밝혔
- EU의 기후 정책 책임자인 뭉케 혹스트라는 “EU 밖의 국가들이 유사한 계획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동안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더 많은 탄소 시장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탄소 시장도 연결해야 한다”고 말함
-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시장 출범을 돕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계획임

[\(로이터통신 2024.2.14\) 케이트 애브넛 기자](#)

2. 유럽 NZIA ‘중국 장벽’ 높인다, EU 진출 한국기업에 반사이익 돌아오나

- 유럽 지도부가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잠정 합의해 법안 시행을 준비하면서 대중국 무역 장벽을 높임
- NZIA가 중국산 제품에 장벽을 쌓으면 유럽 진출 한국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업종도 있음.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기술 분야임. 이 분야 기업들은 유럽 역내에서 제품의 65% 이상을 생산하면 NZIA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권가에선 헝가리에 공장을 세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업체 성일하이텍, 포르투갈 풍력타워 및 하부 구조물 기업을 인수한 씨에스윈드 등 폐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주목하고 있음
- 폴란드, 헝가리 등 EU 회원국 지역에 이미 법인 혹은 거점을 마련해둔 한국 대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함. 히트펌프 등 공조(HVAC)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잡은 LG전자를 비롯해 유럽 전기차 고객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곳들임
- 지원 대상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 사업임. 기존 초안에선 제외됐던 원전 관련 기술사업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새로 편입됨

[\(비즈니스포스트 2024.2.12\) 손영호 기자](#)

[\(이코노뉴스 2024.2.10\) 조희제 기자](#)

3. 美·중양아 5개국 핵심광물대화 출범... 中の 핵심광물 무기화 대응

- 미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함
- 미 국무부는 미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들과 8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었음
- 미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당국자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광물 개발과 관련한 기준과 거버넌스를 충족할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핵심광물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때 연 중앙아 5개국과 정상회의에서 제안함

[\(YTN 2024.2.10\) 이종수 기자](#)

4. 일본개발은행, 1500억엔 투자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 일본 정부 산하 일본개발은행(DBJ)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1500억엔(약 1조3394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투자는 2024 회계연도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자본 투자와 후순위 부채 형태로 이뤄짐
- 정부 투자를 활용하는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에 따라 DBJ는 차세대 반도체, 축전지, 희토류 금속 등 중요 원자재와 관련된 자본 지출 및 연구 개발에 최대 수백억 엔을 지원할 예정임
- 또,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 시설 등 인프라에도 투자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2.12\) 노정용 기자](#)

1. ESG 공시기준 초안 3~4월중 마련… 금융위 “기업 이중공시 부담 완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
-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그간 대응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 등을 논의함
-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건의 내용 등의 골자로 지속가능준비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할 ESG 공시 제도를 다가오는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논의해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함

(뉴데일리경제 2024.2.14) 변상이 기자

(뉴스웨이 2024.2.14) 강민석 기자

2. ‘탄소중립전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3억까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함. 모집기한은 오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임
-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함
- 모집 대상은 기초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뉨.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데, 기초 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트랙은 70% 이내임.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 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함
-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된 100여개사 내외임

(뉴스스 2024.2.13) 이수정 기자

3. 댐 활용해 에너지 생산… 다목적·용수댐에 수상 태양광 설치

- 환경부가 관리 중인 34곳의 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함. 이들 댐 중 일부의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배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목표를 세움
- 환경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을 통해 댐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댐은 가뭄과 집중호우 등 계절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수위 변동성이 있음. 환경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는 지역을 파악해 실증 사업을 벌이고 확대 여부를 파악할 전망이다
- 환경부는 태양광 확대를 위해 올해 관련 규제의 완화도 추진할 방침임

(뉴스1 2024.2.14) 황덕현 기자

4. 세계 첫 청정수소발전… 그린수소부터 암모니아까지 참여

-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시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서 그린수소부터 블루수소는 물론 청정암모니아까지 모든 종류의 청정수소가 참여 예정임
- 6월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시할 예정임. 작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HPS)이 개시된 데 이어 올해는 청정수소발전 시장까지 열린 것임
-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물량은 6500GWh로 일반수소발전(1300GWh)의 5배 규모임
- 청정수소발전 입찰 낙찰자는 준비기간 3년 뒤부터 실제 발전을 해야 하며, 거래기간은 15년임

(에너지경제신문 2024.2.13) 윤병호 기자

1. 머스크, SBTi 승인 기후 목표 시리즈 신설

- 통합 컨테이너 물류 회사 A.P. 몰러-머스크는 2040년까지 넷제로 목표가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의해 검증됐다고 발표함. 머스크는 2022년 말에 시작된 SBTi의 해양 지침에 따라 기후 목표를 검증한 첫 번째 회사가 됨
- 머스크의 기후 목표에는 2040년까지 Scope(스코프) 1, 2 배출량 96%, 스코프 3 배출량 90%를 절대 감축하는 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 외에도 2030년까지 스코프 1, 3 배출량을 각각 35%, 22%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포함돼 있음
- 머스크는 녹색 연료와 연비 개선, 공급망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녹색 메탄올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25척을 주문하는 등 녹색 연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
- 또, 최근 업계 최초로 기존 화석 연료 동력 컨테이너 선박을 이중 연료 메탄올 동력 선박으로 전환하는 개조를 발표함

(ESG투데이 2024.2.13) 수잔 라헤이 기자

2. 니켈서 손 떼는 글렌코어... 뉴칼레도니아 광산 판다

- 세계 최대 원자재 업체 글렌코어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채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함
- 막대한 중국 자본을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불어난 손실을 메우기 힘들다는 판단임
- 인도네시아산 니켈 공급이 급증하면서 2022년 t당 2만5000달러(약 3291만원)에 달하던 니켈 가격은 이후 약 60% 폭락해 t당 1만6000달러(약 2105만원) 수준이 됨
- 코얌니보 광산 외에도 트라피구라의 고로 광산 등 뉴칼레도니아 내에서 사업 중인 세 개 기업 모두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채굴을 중단할 위기임

(한국경제 2024.2.13) 김리안 기자

3. 테슬라 제친 中 BYD, 멕시코 공장 설립 검토... “美 시장 공략 포석”/中 BYD 전기차, 3분기 한국 상륙 ‘임박’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치고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중국 비야디(BYD)가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음.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BYD 입장에서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됨
- 닷케이에 따르면, BYD는 멕시코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함. 이와 관련해 멕시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공장 위치 및 기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
- BYD는 지난해 4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테슬라를 넘어서며 최초로 1위 자리에 오름.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중국에서 판매함. BYD 입장에선 해외 시장 강화가 향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
- 한편, BYD는 이르면 3분기 국내시장에 전기 승용차를 출시할 예정임. BYD의 전기 승용차 국내 출시는 이번이 처음임

(조선일보 2024.2.14) 정미하 기자

(아주경제 2024.2.14) 김정훈 기자

4. 현대차-토요타 美 수소사업 ‘경고등’... 셸, 캘리포니아 수소충전소 7곳 폐쇄

- 셸(Shell)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7곳을 영구 폐쇄하기로 함. 기존 추진했던 현지 수소 충전소 부지 매입 프로젝트도 철회함. 이번 영구 폐쇄에 따라 셸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48개로 줄어들음
- 셸은 지속해서 수소 충전소 수를 조정한다는 계획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도 충전기 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함. 지난해 실적 개선을 위해 탄소 절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수소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
- 셸은 2022년 영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소 충전소를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 기업 내 저탄소 솔루션 부문(LC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현대차와 도요타의 현지 수소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됨

(더구루 2024.2.13) 윤진용 기자

1. 한화오션, 친환경 경제운항 솔루션 개발... 암모니아 운반선 적용

- 한화오션은 14일 선박 운항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선주에게 친환경 운항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 모니터링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 이 기술은 한화오션이 최근 수주한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시리즈에 적용될 예정임
-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는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운항 정보를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지수화한 값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규제임
- 이 기술은 해당 선박의 현재 등급은 물론 운항중인 항차의 등급, 해당 연도의 연말기준 등급도 예측할 수 있음

(SR타입스 2024.2.14) 윤서연 기자

2. 삼성SDI, 호주 니켈-코발트 프로젝트 NiWest에 투자 추진

- 삼성SDI가 호주 얼라이언스 니켈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하는 NiWest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호주 니켈 벨트 지역에 있는 미개발의 고급 니켈-코발트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위한 배터리 등급 니켈 및 황산코발트 제품을 연간 약 10만 톤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얼라이언스 니켈은 9일(현지시간) 호주 증권 거래소(ASX)에 삼성SDI와 구속력 없는 텀 시트를 공개함. 이 텀 시트에는 삼성SDI가 최종 조건의 협상과 충족에 따라 초기 6년 동안 구속력 있는 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 요약돼 있음
- 또, 삼성SDI는 얼라이언스가 NiWest 프로젝트를 진행할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됨

(글로벌이코노믹 2024.2.10) 홍정화 기자

3. SK온, 美 천연흑연 3.4만t 확보 공급계약 체결

- SK온이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 웨스트워터 리소스와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힘
- 웨스트워터는 오는 2027~2031년 앨라배마주 켈린턴 소재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흑연을 SK온 미국 공장에 공급함
-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 테이크' 계약임. 북미 전동화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최대 3만4천t까지 구매할 수 있음
- 양사는 지난해 5월 체결한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에 이어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게 됨

(이코노미뉴스 2024.2.12) 김윤수 기자

(한겨레 2024.2.12) 최우리 기자

4. LG엔솔,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화... 승용차 배터리 공급 확대

- 배터리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이 인도에서 전기 스쿠터 시장에 이어 승용차 시장에도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힘
- LG엔솔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와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모색 중임
- 구체적인 파트너십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인도에서 올라 일렉트릭(OLAE.NS)과 TVS(TVSM.NS) 등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에 배터리 셀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2월에 설립된 인도 법인을 통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M.NS)의 전기차에도 배터리 셀을 공급하며 승용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4.2.10) 홍정화 기자

5. 포스코이앤씨, 글로벌 탄소중립 SBTi 승인... 탄소중립 전략 신뢰성 확보

- 포스코이앤씨가 글로벌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탄소 감축 목표 계획)의 2030년 단기 탄소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힘
- 포스코이앤씨는 SBTi 승인 목표에 따라 Scope(스코프) 1, 2에서는 저탄소 현장 구현과 함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을 추진함
- 스코프 3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에 따른 친환경 건축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자재 확대 등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밸류체인 탄소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

(스마트투데이 2024.2.14) 이재수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2.9(금) ~ 2024.2.15(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중국, ESG 의무공시 지침 발표... 스코프 3 배출량 보고도 포함

- 중국의 3대 주식시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SSE), 선전증권거래소(SZSE), 베이징증권거래소(BSE)가 새로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발표했다고 ESG투데이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보도함
- 지침에 따라 3대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2026년 4월 30일부터 ESG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이로써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에 이어 ESG 공시법 도입 행렬에 중국도 참여하게 됨
- 의무 적용 대상은 전체 상장 시장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450개 기업임.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음
- 중국 거래소는 지침에서 네 가지 핵심 공시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 유럽과 동일하게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따름
- 지침은 △기후 변화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순환 경제 △에너지 사용 △공급망 안보 △지역 활성화 △반부패 및 뇌물 방지 등 광범위한 ESG 주제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 기업들이 도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규칙에 포함함
- 중국의 ESG 의무 공시를 발표가 놀라운 일은 아님
- 중국은 2020년 12월 국내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10개 이상의 ESG 테마와 130개의 기본지표, 350개 데이터 포인트, 40개 이상의 산업 리스크 및 기회 매트릭스 지표를 통합해 중국형 ESG 지표인 CN-ESG 평가 시스템을 발표함
- 이는 한국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21년 12월보다 1년 앞섬. 또, 중국은 2022년 6월 기업 ESG 공시 지침도 발표함.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100대 기업의 89%가 ESG 공시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인 ESG 공시를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즉, 중국의 특수한 노동환경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등 ‘불리한 게임의 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AXA SPDB 투자운용사의 주식투자 담당 양유빈 부이사는 2021년 6월 중국 사회투자포럼 정상회담에서 “국내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최악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ESG 투자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ESG 자금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임팩트는 2024.2.13) 송준호 기자